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사업 관련 궁금증,한자리에서 해결하세요

사회적기업 창업에서 협동조합 설립까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 이하 '진흥원')은 2월 3일(금)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관련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2017년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인증 지원, 판로 및 컨설팅 지원, 협동조합 지원 정책 등 진흥원의 주요 사업 일정과 지원 절차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진흥원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광성 원장은 '올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한 단계 도약이 요구되는 시점' 이라고 하면서 '진흥원은 17년에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신규로 개소하는 등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사업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당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업 설명회 자료와 주요 질의 사항 등을 사업설명회 종료 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근로자 건강보호 비용, 지금 바로 지원 받으세요!

-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실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가능하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6월경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작업환경측정을 과거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연중 수시이며,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 받는다.

한편, 지난해 9,589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67,889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았다.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지난해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7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전망” 발표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수출 주력 제조업종(15년 기준 전체 수출액(통관기준)의 63.2% 차지)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17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기계·전자·섬유·철강·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하며, 조선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유지

상반기 대외 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기계산업에 호재

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개선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 및 일본 제품과의 경쟁 심화, 브렉시트 가결 후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서 확산, 미국의 금리인상 및 세일오일 생산 증가 등도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고용은 전년 상반기 수준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7%(5천 명) 소폭 증가로 전년 수준 유지할 전망이다.

〈2〉 조선 : 크게 감소

세계경기둔화, 선박공급과잉, 유가약세 등에 따른 조선업의 침체가 2017년 상반기에도 지속되며, 2016년 수주 급감에 따른 일감 부족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2017년 상반기에도 고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상반기 고용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15.0%(27천 명) 감소할 전망이다.

〈3〉 전자 : 유지

신시장 창출 지연, 전세계적 경기침체, 교역 둔화 등으로 2017년에도 세계 전자시장은 소폭 성장에 그치는 저성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 기자동차 수요 증가, 차기 스마트폰 모델 출시, SSD 채택률 증가 등으로 프리미엄급 제품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용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고용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0.8%(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섬유 : 유지

중국 등으로부터의 역수입 증가, 저가 섬유 소재 수요 증가, 해외직구 등 수입 창구 다양화 및 접근 용이성 등의 요인으로 섬유 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하락폭 완화와 미국 경기 회복, 환율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은 소폭 증가함에 따라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일자리는 전년 상반기에 비해 소폭(0.3%)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년 일자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철강 : 유지

수요산업 불황,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규제 심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의 악재가 예측되나, 중국 내 생산 감소,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 인상으로 상반기 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업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될 설비동물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7%(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반도체 : 유지

전년도 수요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안정세 지속 및 IT 기기당 탑재 용량 증가 등으로 반도체 업종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년도에는 공급과잉 및 단가 하락으로 주춤하였으나 2017년에는 NAND 관련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개선을 통한 매출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고성장세의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 역시 국내 반도체 시장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0.8%(1천 명) 증가하여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자동차 : 유지

2017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판매의 감소폭이 수출증가율보다 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동차 업종의 고용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1%(4천 명) 증가해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디스플레이 : 유지

스마트폰, TV의 OLED 채용 증가에 따른 시장의 꾸준한 성장 속에서 LCD 가격 상승 및 대형사이즈 LCD TV 수요 증가로 패널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LCD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

리나라의 OLED 투자 확대에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 역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스마트폰의 OLED 채용 확대에 따른 부품 소재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LCD 시장의 축소로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은 전년대비 축소됨에 따라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8%(1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9〉 건설 : 유지

2017년 상반기 건설 업종은 SOC 예산 감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과잉공급 해소 지연 등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수주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고용수준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9%(17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금융보험 : 유지

2017년 상반기 은행 업종은 경제성장세 둔화,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수익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호저축은행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육성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증권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7%(6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3년 7월 7개 제조 업종을 시작으로 '14년 1월에는 조선 업종, '15년 7월부터 건설 업종, 금융·보험 업종을 추가한 총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반기별 일자리 전망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고용보험 DB,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해 수요 측면의 일자리를 전망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업종별 고용상황을 예측하고 직종, 지역별로 세분화한 취업 유망분야 및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통한 경기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들 간의 구인·구직활동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미래의 고용 트렌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 잘하는 건설안전 지도기관,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 68개 기관 대상으로 업무 수행능력, 기술지원 충실성, 사업장 만족도 등을 평가 -

고용노동부는 중소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68개 전문지도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능력, 기술지원 충실성, 재해발생수준, 사업장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 중부종합안전(주) 등 15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주)고려안전연구원, 중부재해 예방관리원(주) 등 11개 기관이 불량등급 판정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사업 민간위탁자 선정시 가점을 받게 되고, 이들 기관이 지도하는 안전관리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감독 면제대상 추천권을 부여받는다.

한편, 불량 등급을 받은 11개 기관은 민간위탁자 선정 시 감점을 받고, 이들 지도기관이 지도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 대상으로 선정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추락, 낙하, 감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도기관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기술지도 수준 저하를 방지하고, 우수한 전문기관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2.1~12.30(1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지방청별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① 기술지도 운영 실적 및 상태 ②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③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④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 발생현황 등 4개 분야, 25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등에 대해서도 기관간의 수수료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체계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